

대학에
바란다

행복 추구 대학과 대학교육

이정규 | 캐나다 센트럴 칼리지 전 학장



행복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이자 대학교육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행복추구대학이란 일반적으로 개인과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필자는 행복추구대학을 개인의 실용성 및 행복 추구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선과 보편적 복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도덕적으로 올바른 민주 시민을 육성하고, 국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국가 발전과 정의로운 국가 실현에 도모하며, 나아가 세계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공생공영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정의한다.

(1) 개인의 실용과 행복을 추구하는 대학교육

대학교육은 전통적으로 교육, 연구, 봉사의 기능으로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고 보전하고 발전시키면서 개인의 실용성 추구, 지식과 기술

함양, 자아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여 왔다. 본질적으로 대학이 '학문의 자유'라는 기치 아래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학은 최고의 투자재로서 교육의 성과, 보상, 효율에 더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문적 교양이나 도덕 함양, 그리고 인권, 평등, 자유, 정의, 진리 등과 같은 덕목이나 가치 배양에 소홀히 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세에 이르러 윤리와 도덕은 대학보다는 종교기관이나 가정에서 배우고, 인문적 교양이나 개인적/사회적 덕목은 학교교육의 울타리 안에서보다 밖에서 습득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윤리·도덕교육을 가정과 더불어 종교 및 교육기관에서 실행해왔다. 특히 수백 년 동안 조선 왕조의 황금률이었던 유교를 토대로 상식화·관습화된 윤리적 덕목과 도덕적 원리는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 내려 한국인의 가치와 철학으로서 일상화 되었다. 이

러한 유교의 윤리 덕목과 도덕적 가치가 비록 실행과정에서 시대적 및 문화사적 흐름에 편승하여 개인 윤리보다는 정치·사회 윤리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어 인격의 수양이나 연마보다 유학(儒學)을 통한 입신출세와 민생 통제나 억압의 도구로 전락되었지만,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관습과 풍조는 현대 한국 사회와 가정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서양 문물과 사상의 도입으로 한국인의 전통적인 윤리적 가치와 덕목이 퇴색 내지 변질되고 있다. 특히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 경제와 실용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강조하는 서구 사상, 과학과 실용을 강조하는 서양의 학문이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과 문물에 접목됨으로써 한국인 고유의 윤리 덕목과 가치가 흔재되어 정체성이 상실 혹은 이질화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물질주의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 환경은 덕성과 학문을 숭상하는 풍토를 흐리게 하였고, 자유와 평등을 구가하는 서구의 인본주의 정치 사상은 차이와 다름에 대한 개인의 능력과 지위의 다양성 및 한계성마저 허물어버렸다. 돈이 만물의 척도가 되고 황금률이 된 세상에서 인권, 미덕, 학식, 교양은 보잘것 없는 장신구로 전락되었고, 진리, 자유, 정의, 평화는 단지 정치·사회적 구호에 불과하게 되었다.

지금부터라도 대학은 실용성·전문성과 함께 개인의 덕성을 함양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식과 교양뿐만 아니라 윤리적 덕목과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고 가르쳐야 한다.

(2) 올바른 민주 시민을 육성하고 세계 평화를 도모하는 대학교육

지금까지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국가나 개인의 실용적인 면에 치우치다 보니 개인의 인문적 소양이나 공동체를 위한 건전한 시민 의식, 사회 복지, 올바른 정치 참여 및 세계 평화에 대한 교육은 경시되었고, 사회 구성원의 공생공영과 공동선을 정립하기 위한 연대성, 봉사활동, 자선, 생명 존중, 환경보호, 세계동포애에 대한 실천적 교육은 형식에 그치거나 도외시 되었다.

한국 사회 일각에서, 특히 다수의 사회지도층이나 사회경제적 상위계층이 명예나 권익만을 추구하고 도덕적 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양보, 자선, 봉사에 대한 실천적 의지와 활동이 미약한 것은 대학을 포함한 생존경쟁적 대학 입학시험 중심 교육제도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사회·경제적 강자가 누리는 권력, 재물, 명예, 대접은 상생(相生)의 조건 하에서 약자에 대한 관심, 배려, 나눔, 자선, 봉사 등의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상호 공영과 화합은 민주 시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올바른 시민 의식 함양, 인권과 도덕심 양양, 사회 복지 향상, 봉사 활동 권장, 생명 존중, 환경 보호, 다문화 이해, 연대성(Solidarity) 실행은 사회 공동체의 공동선과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 덕목과 가치로서

대학에서 반드시 교육되어야 한다.

(3) 정의로운 국가 실현을 위한 대학교육

한국의 대학은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국가 발전을 위한 도구로써 산업의 현대화 및 선진화 그리고 국가 경쟁력 신장을 위한 인력 내지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양성소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수년 전까지만해도 한국 정부는 전적으로 대학을 감독·통제하면서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인력 수급을 충당하고 조절해왔다. 지금도 국가 경쟁력 강화, 대학의 질적 제고, 대학 쇄신 등의 구호 아래 여러 가지 정책과 명분을 내세워 대학을 통제·압박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국민의 과도한 교육열과 학력·학벌주의 사회화 덕택으로 공교육비 비용을 상대적으로 경쟁국가보다 적게 투입하고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이른 현시점에서,

국가경쟁력 신장을 위한 고급인력 육성 및 충원 위주의 대학입시·교육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고급 인력은 대학원 중심 교육 정책을 실시하여 대학원에서 충원하고, 대학은 대중교육기관으로서 선량하고 도덕성 있는 시민·국민·세계인을 육성하기 위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대학교육은 자유와 정의, 평등과 화합, 기회와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고, 국가가 대학을 도우며 대학에 전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보조성(Subsidiarity)의 원리가 준행되어 정의로운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한다면, 한국에서 미래의 대학교육은 개인의 실용·전문성과 행복 추구, 공동체와 사회의 공동선 및 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도덕적으로 올바른 민주 시민 육성, 국가 발전과 정의로운 국가 실현,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생공영을 위한 인권교육, 환경교육, 다문화교육 및 세계·동포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필자소개

이정규 | 캐나다 센트랄 칼리지 전 학장

미국 오스틴 소재 텍사스대학교(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고등교육행정을 전공하여 철학박사(Ph.D.) 학위를 받고, 캐나다 센트랄 칼리지 학장,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교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연구본부 연구위원, 홍익대학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대학행정전공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또한, 국제학술지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 Studies 편집위원, Higher Education, Radical Pedagogy, Globalization and Health 평가위원, 한국대학신문 전문위원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였다.

<참고> 주요 저서로는 『Korean Higher Education: A Confucian Perspective』, 『Historic Factors Influencing Korean Higher Education』,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근원과 발달』, 『한국의 고등교육: 종교와 문화의 관점에서』, 『대학, 행복을 위한 황금 열쇠인가?』 외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다. 저자의 논문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브라질, 인도, 중국, 호주, 남아프리카, UN, OECD, UNESCO의 저명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혹은 소개되었으며, 일부 논문은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출간되었다.